

독일대학 가구디자인 관련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1

조 숙 경*2

A Study on the Curriculums Related to Furniture Design Departments in Germany

Sook-Kyung Cho

ABSTRACT

Our furniture industry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eclining economy. The existing weak furniture industry in Korea has yielded its inability to complete in a very competitive marketplace. The furniture companies lack the special necessary skills and professional knowledge necessary to design and manufacture furniture. Therefore, constant effort by designers and managers is nee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Korean furniture industry's strategy and advance it into becoming a recognized player in the area of furniture design, worldwide. Designers has to have systematic training in order to have insight into upcoming international trends and incorporate new manufacturing techniques immediatel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urriculums related to furniture design departments in Universities and technical schools in Germany, a leader in the furniture industry.

It will present new educational ideas and program for furniture designers in the Korean universities.

Keywords : furniture design, curriculum, Germany, program for furniture designers

*1 이 논문은 경민대학 가구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Dep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 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1. 서 론

1.1 연구목적

우리 나라의 가구산업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계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한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창업 할 수 있다는 기존 생각에 바탕을 두고 우후죽순으로 자라난 영세한 규모의 가구공장들은 우리 나라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구디자인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디자인분야와는 차별되는 가구분야만의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즉 교육을 받지않은 제작자가 디자인까지 담당했던 과거 가구산업에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타사 제품의 모방이나 전문디자이너 없이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 정식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를 영입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경쟁하는 선진국형의 경영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열악한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서 가구디자이너의 위치를 바로 잡아가고, 보다 발전적인 가구 산업을 위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선 디자이너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디자이너들은 빠른 시대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습득이나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역할 증대를 위해 그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우리 나라 가구산업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기능주의에 뿌리를 두고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독일의 가구산업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한 우리 나라의 가구디자인 교육과 가구 산업에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구의 모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높은 인건비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나라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독일 가구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대학이나 직업학교의 가구디자인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직업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진학할 수 있는 심화과정으로 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보통 8학기나 9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 대학과 직업학교의 가구디자인 관련학과의 개설현황을 각 학교의 입학자료나 홈페이지 또는 독일 디자인 전문잡지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입학을 위한 전제 조건부터 졸업까지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고, 독일 대학의 가구디자인 교육의 특성을 분석한다.

2. 독일 가구디자인 관련학과 교육과정 현황

2.1. 가구디자인 관련 학과의 개설 현황

독일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 그리고 실내디자인학과에서 가구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으며, 특별하게 "가구디자인학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세부 전공으로 가구디자인이 명시되어 있는 대학은 3-4개 정도이며, 그 외에 나머지 대학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나 제품디자인학과에서 각 학기마다 가구디자인이 테마로 다루어지거나 여부에 따라 가구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직업학교에는 목재기술학과에서 가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업을 마친 후 전문 가구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디자인영역의 일들을 섭렵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현실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 실업률이 많은 독일의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가구디자인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분야가 아니며 다른 분야들과 경계 없이 다루어질 때 그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가구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건축과 출신이 많다는 점은 특기 할 사항으로 이것은 가구디자인이 예술분야에서 아주 세분화된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가구디자인 수업은 실내계획은 물론 다른 영역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산업디자인학과에는 보통 공업디자인과 가구디자인, 시각디자인, 의상디자인, 그리고 섬유디자인 등 여러 가지를 모두 포함하며 자유롭게 그것들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목공예학과를 모체로 변화한 우리 나라의 가구디자인학과와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가구 관련학과가 개설된 독일의 대학과 직업학교를 예로 가구디자인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2.2. 카셀종합대학교

(Gesamthochschule Universität Kassel)

독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대학은 프랑크푸르트에 속해 있는 헤센(Hessen)주에 포함되며 1972년에 설립되었다. 미술대학에는 순수미술과 시각전달, 그리고 제품디자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품디자인학과는 네 가지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즉, 공업디자인, 가구디자인, 시스템디자인 그리고 섬유디자인이 그것이며, 이 대학은 독일에서 가구디자인이라는 세부전공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대학중의 하나이다. 독일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세부전공을 원하는 데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재료가공이 가능한 다양한 작업실이 구비되어 있다. 가구디자인 학과에서는 하나의 가구를 테마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내 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 즉, 가구가 놓여지는 공간을 먼저 설계한 다음 세부적인 가구디자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람회장 인테리어와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디자인하는 것이 한 학기 테마로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과정 4학기, 상급 교육과정 4학기, 그리고 논문학기로 이루어져 모두 9학기이다. 기초 교육과정이 끝나면 중간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4학기의 성적으로 평가되며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상급 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초 교육과정에서의 과목들은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띠고 하겠다. 상급교육과정에서의 선택과목은 4가지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소한 한 그룹에서 한 개씩 이수해야하며, 중복되어도 상관은 없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학기

- 표현기법: 자유화, 제도, 기하학적 표현법
- 도안과 성형: 예술적인 성형법, 도안, 시스템적인 작업, 직업영역과 디자인사, 그리고 미술사 중에서 한가지 선택
- 작업장 코스: 목재, 금속, 플라스틱, 문자도안, 사진학, 종이, 석고, 섬유 등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실습과정

2학기

- 표현 기 법: 자유화, 제도, 기하학적 표현법
- 도안과 성형: 예술적인 성형법, 도안, 직업영역과 디자인사, 그리고 미술사 중에서 한가지 선택, 기술학
- 작업장 코스: 목재, 금속, 플라스틱, 문자도안, 사진학, 종이, 석고, 섬유 등을 다룰 수 있는 기본 실습과정

3학기

- 그림을 통한 표현기법
- 전공에 관련된 도안과 모델성형
- 디자인 이론과 방법
- 기술학

4학기

- 그림을 통한 표현기법
- 전공에 관련된 도안과 모델성형
- 디자인 이론과 방법
- 기술학

5학기

- 사회학
- 인간공학
- 전공실기
- 선택과목 I

6학기

- 디자인 이론과 방법
- 인간공학 II
- 전공실기
- 선택과목 II

7학기

- 전공실기
- 선택과목 III

8학기

- 전공실기
- 선택과목 IV

9학기

- 논문학기

* 선택과목은 아래와 같이 네그룹으로 나뉜다.

- | | |
|--|--|
| <p>A. 표현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그리기/채색화 • 입체조형 • 사진학/영화 • 문자도안 • CAD | <p>B. 기술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과 제작론 • 장치요소와 기계학 • 기술설계 • 섬유 특수기술 |
| <p>C. 이론과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디자인/사회학/필요분석 • 디자인 이론과 방법 • 디자인을 위한 계획방법과 연구방법 • 학문적 이론의 기초 • 전기적 자료가공을 이용한 디자인 | <p>D. 사회의 변천과 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사, 미술사, 디자인사 • 기술사, 건축사 • 기술적 진보/기술선택 • 미래모델/유토피아 |

상급 교육과정에서는 개설된 과목을 반드시 그 학기에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학기에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9학기는 논문학기로 위에 나열한 기초와 상급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논문 테마는 디자인 이론에서 실제 디자인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회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하거나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졸업 후 관련회사에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논문심사에 위촉되는 심사위원들은 학교 내의 교수님을 비롯하여 테마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2.3. 모스바흐직업학교
(Berufsakademie Mosbach)

바덴 뷔르템베르그(Baden-Wuerttemberg)지역은 1974년 전통적인 전문학교 내에 공동으로 경영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직업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적인 직업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의 이원화 시스템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으며, 회사를 이론의 실습 장소로 활용한다. 실습위주의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교육과정동안 회사로부터 매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작은 그룹단위의 실습과 강의가 진행되며, 강사들은 직업 아카데미와 대학교, 전문대학교의 교수들과 전문학교나 회사의 탁월한 현장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경영학 석사 또는 기술학 석사는 합법적으로 독일 연방전체의 전문대학 졸업시험과 대등하게 인정되며, 졸업 후 80%정도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목재기술학과에서 가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기초 교육과정은 공학적인 기초규범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지며, 상급 교육과정은 가구, 실내건축 그리고 목재가공에 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학기마다 3개월간의 이론과 3개월간의 실습으로 진행된다. 또한 회사에서 직접 경험 할 필요가 있는 과목들도 개설되는데, 1, 2학기에는 최소 4주에서 최고 12주간 동안 금속이나 목재, 플라스틱 중에서 최소 두 개의 제작 기초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이 중에서 최소한 14일 동안 전기기술에 관한 제작 기초과정을 거쳐야한다. 3, 4학기에는 기초 제작에 관한 보충과 응용, 작업의 기술측면에 대한 개요를 습득해야 한다. 5학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들의 개요를 다루고, 6학기에는 석사논문을 위한 제작을 해야한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 | | |
|--|---|
| <p>1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 기술 화학 • 기술 역학과 강도 교육 • 구조 교육 • 정보가공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물리학 • 재료안내와 실험 • 작업 안전 • 전기기술 |
| <p>2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물리학 |

- 기술 화학
- 기술 역학과 강도 교육
- 재료안내 실험
- 가격산출과 공정계산프로그램 설계
- 공업경영훈련
- 정보가공과 프로그램 설계

3학기

- 재료안내와 실험
- 구조교육
- 목재가공을 위한 기계와 도구들, 측정술, 정돈술, 조정술
- 제작기구
- 선택된 전문테마
- 응용 계산

4학기

- 기술 역학과 강도 교육
- 측정술, 정돈술, 조정술
- 제작기구
- 응용계산

5학기

- 가구와 실내건축에 관한 세부과목: 제작기술, 구조, 장치조립, 프로젝트 경영, 환경기술, 품질상태, 품질 안전 실험(가구시험), CMI실험, 연습작업
- 목재가공, 조립요소와 목조건축에 관한 내용: 취급기술, 제작기술, 구조, 목조건축 기술과 완성된 집 건축, 프로젝트 경영, 환경 기술, 물질상태, CMI실험, 연습작업

6학기

- 가구와 실내건축에 관한 세부과목: 제작기술, 구조, 장치조립, 공장설계, 직원과 안내, CMI실험, 품질 안전실험, 표면 기술실험, 연습작업
- 목재가공, 조립요소와 목조건축에 관한 내용: 취급기술, 제작기술, 구조, 목조건축 기술과 완성된 집 건축, 공장설계, 직원과 안내, CMI실험, 품질 안전실험, 표면 기술실험, 연습작업

2.4 로젠하임 전문대학교

(Fachhochschule Rosenheim)

1925년에 설립된 로젠하임에 위치한 이 학교에서는 목재기술학과에서 목재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과 목재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목재제품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예를 들면 가구나 창문 등의 건축적 요소들이 그것이다. 이 학교의 강사들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초빙되며, 학교와 현장간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박람회장 방문과 회사 현장 견학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 분야의 지도자, 경영인, 회사원, 제조업자, 장인들의 지도자, 기술개발, 구조 지도자, 질적 안전 그리고 경영계획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은 유럽 공동체의 모든 나라에서 동등하게 인정된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1학기

- 화학
- 통계와 제작연습
- 기계요소와 기계역학
- 수학
- 정보가공
- 재료안내 I

2학기

- 수학
- 통계와 제작연습
- 정보가공
- 필수 : 자동화기술, 개인경영, 계약법, 기업계획, 경영과정의 조직화, 노동법 프로젝트경영, 품질경영, 실행연습
- 선택 : 기초CAD, 톱과 대패작업 기술, 제작과정에서의 최선책, CNC실습, CIM초안, CIM실습, 장치 설비, 개인경영, 경영과정의 조직화

3학기

- 실습
- 필수 : 공업시설 마케팅과 계약법, 동력과 연합 기술
- 선택 : CNC기술, 운반 저장기술

4학기

- 재료안내 II
- 목재화학
- 기사수학
- 전기기술
- 구조학습
- 경영학습 II
- 필수: 보호기술, 조립과 기계계획
- 선택: 전공과 관련된 과목,
- 목재건조
- 목재가공 기계
- 에너지기술
- 측량, 조정, 규정기술
- 제작기술 I

5학기

- 제품경영 I
- 구조학습 I
- 목재가공 기계
- 측량, 조정, 규정기술
- 제작기술 I

6학기

- 실습

7학기

- 환경보호
- 제작기술 II
- 목재건축의 기초
- 공장계획
- 스스로 하는 학문적 연구
- 구조학습 II
- 경영학습 II
- 제품경영 II

8학기

- 제작기술 II
- 제품경영 II
- 스스로 하는 학문적 연구
- 경영학습 II
- 공장계획

2.5 포츠하임 전문대학교

(Fachhochschule Pforzheim)

“산업디자인은 공업적으로 제작된 생산물과 시스템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계획적, 창조적이며 조형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며, 또한 제품조형과 산업적인 성형을 뜻한다. 산업디자인은 대두되는 요구만족과 개인적인 표현 E도는 사회적 삶의 형식과 인간적인 환경으로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한다.” 라고 학교 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는 이 학교 교육의 목적은 실제적이며 디자인의 중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기초화하기 위한 도안 능력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한편으로 소수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작업을 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안능력, 이론적인 연습 그리고 세미나를 전공과 관련된 여러 전문 영역에 걸친 배움과 그룹에서의 습득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실행하여야만 한다. 또한 학업은 모든 디자인과정의 국면, 계획, 기획, 도안, 생각의 실현과 기술적으로 조정해야만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위하여 학문적인 규범은 실습에 근접한 전공실기에서 인간공학, 전달능력, 계획방법 그리고 결정방법, 기술적인 지식처럼 취급되어진다. 생태학적인 관찰 방법들은 이론적, 실습적인 수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표현기술들은 CAD를 통해 증대되고 보충되어진다. 점점 더 급변하는 작업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규범적인 작업그룹을 위한 노동방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7학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며 모든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8학기에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개로 분류된다.

1. 전공수업 : 계획, 초안, 도안과 생산재와 소비재에서의 산업제품으로부터의 완성
2. 학문적 분야 : 예술사와 디자인 사, 미학, 디자인 개요, 인간공학, 구조연습과 탐구연습, 경제학, 경영경제학, 사회학, 법, 기하학, 생태학과 기초 지식
3. 기술 실현 : 여러 가지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현기법(예: 렌더링), 사진기술, 비디오기술, CAD를 이용한 2, 3차원적인 성형, 모델성형
4. 예술적 분야 : 그림 그리기, 채색화, 플라스틱, 매체작업

2.6 에버스발데 전문대학교

(Fachhochschule Eberswalde)

1993년에 개설된 목재기술학과에서 가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3학기의 기초 교육과정과 5학기의 상급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교육과정(1, 2, 3학기)

- 필수 과목:
 - 수학 -EDV
 - CAD -기술적 물리학
 - 에너지 기술 -기술적 기계학
 - 기계안내 -화학
 - 식물학 -재료안내
 - 입업개요
 - 제작과 촉진기술/목재 가공기계
 - 전문영어 -전기기술
 - 경영학 -법개론
- 실습 : 3학기 이내에 8주간의 실습을 마쳐야 한다.

등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은 건축과 실내건축 그리고 실내건축과 디자인의 관계에서 조형과제로부터의 의미 있는 결합과 질적인 공간 정리를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기술적 구조, 예술적, 미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한 자격을 달성하는데 있다. 즉, 조형과 경제학, 생태학 그리고 그 대등 안에서 창조적인 책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는 예술적이고 기술학적인 기초에 근거한 특별한 과정들이 제공된다. 인간의 요구에 대한 조형설계를 근거로 하는 기초 교육과정 3학기 와 상급 교육과정 4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8학기에 논문을 쓸 수 있다.

2. 상급 교육과정

- 4, 5학기 필수과목:
 - 목재물리학 -목재 물리학
 - 목재화학 -제한된 목재
 - 목재재료학 -가구설계, 가구표면
 - 목재설계 -목재건조/목재보호
 - 측량, 조정, 규정기술
 - 제작계획/경영조직
 - 경영학 -인간공학
 - 개인적 기업적 실행 -재목상

1. 기초교육과정:

- 기초조형 -표현기법의 기초
- 기초 기술학 -기초 공간 계획
- 기초 가구설계 -건축의 기초
- 미학과 미술사 -심리학

2. 상급 교육과정:

- 표현기법 기술
- 아래와 관련된 실내건축 I 과 II 의 설계:
 - 가. 호텔, 여관, 집회소
 - 나. 공공건물, 사무실, 관청
 - 다. 박람회장, 전시장, 상점
 - 라. 도시계획, 색상, 공간, 노동현장
- 실내건축 설계, 벽감 -실험적 도안
- 건축물 설계 -가구설계와 구조부분
- 인지 심리학

3. 실습 : 입학 전에 12주의 실습이 요구되며, 입학 후에는 8주간의 작업장 코스를 밟아야한다.

실습

- 6학기 : 구체적인 경영과제에서 얻어지는 기술적 응용/경영적 결합/외국에서 가능한 실습
- 7, 8학기 선택과목:
 - 제한 목재 -목재설계
 - 목재 재료학 -가구설계, 가구표면
 - 질안전 -인간공학
 - 초보세미나 -목재경영
 - 산림수익 -목재건조/목재보호
 - 순환/폐물경제 -전문영어

2.8 바우하우스-바이마르대학교
(Bauhaus-Universität Wimar)

1993년 가을에 설립된 조형학부는 전문영역, 실기수업, 조형적, 예술적인 학업 과정과의 융합 그리고 수준 높은 이론을 습득하는데 그 중점을 둔다. 순수예술, 제품디자인 그리고 시각전달 등의 세부전공으로 나뉘는 이 학부의 수업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실기의 계획에 있다. 이러한 계

2.7 비스마르 전문학교

(Hochschule Wismar)

이 대학에는 실내건축학과와 디자인/실내건축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디자인/실내건축과에는 다시 디자인, 실내건축, 전달디자인과 광고매체

획은 오늘날의 취업상황을 앞서서 수용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으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이 요구되어진다.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더 이상 명확한 법칙에서 지배되는 숙련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형학부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적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교육과정 4학기 와 상급교육과정 4학기로 구분되며, 9학기는 논문학기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1. 강 의 : 유럽의 디자인, 20세기의 예술, 사진학
2. 세미나 : 미술사, 디자인의 역사와 이론, 유겐트 스타일,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화술, 철학과 건축, 헨리 반 데 벨데의 학교 건축물에 있어서 초기의 그리고 클래식한 현대박물관에 관한 계획, 박물관 설계, 디자인경영, 학문경영, 디자인과 양식
3. 전공실기 : 전시-인터페이스 디자인, 전시디자인, 입체조형, 사진학, 출판디자인
4. 작업장 코스: CAD, 표현기법, 금형, 기초 사진학, 석판과 석판인쇄, 금속작업, 모델과 형태 성형, 실크인쇄, 플라스틱 성형, 목공 작업

3. 가구디자인학과의 교과 과정

3.1 입학 을 위한 전제 조건

독일의 대부분의 디자인학과 입학 전형은 1년에 한 번으로 실기시험이 5월말에서 6월초에 주로 봄 학기말에 이루어지며, 수업은 겨울학기인 10월에 시작한다.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1차 서류전형은 다른 여러 서류들과 함께 최소 2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의 실습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입학 후에 실습을 허락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 교육과정이 끝나기 전에 실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지정한 회사나 그렇지 않은 작은 공방이나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습을 통해 얻

어지는 것으로 제품의 제작과정에 관련된 기초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 분야로는 도자기, 목조각, 섬유, 금속, 유리공예, 모델성형, 그래픽, 가구, 실내건축, 플라스틱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이 증명서를 획득하기 위해 보통 일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독일 내에서 실습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근접한 유럽국가나 멀리서 미국에서 실습을 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은 이 실습을 통해 단순히 증명서를 얻는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거나 언어를 습득하는 등 졸업 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로 대학 교육에 임하기 전에 디자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현장과 다름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이러한 기본 자질을 갖추어 학교에 입학 한 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초교육과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형제작으로 전공실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 창조에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서류전형이 끝나면 입학 을 위한 실기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일자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3-4학교에 지원한다. 실기시험은 보통 4가지로 소묘, 만들기, 논술 그리고 채색화로 이루어지며, 포트폴리오를 면접 시 제시하거나 1차 서류전형에 제출하여 통과된 학생에 한하여 시험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다. 제한 시간은 시험마다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기술적인 면보다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하겠다.

3.2 기초 교육과정

기초교육과정은 디자인학과의 경우 1학기에서 4학기로 구성되며, 직업학교에서는 3학기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예술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기와 이론교육으로 나누어진다.

1, 2학기에는 자유로운 표현기법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제한 없는 다분히 순수 예술에 가까운 경

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진다. 또한 디자인과 모형제작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도 개설되어 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

3, 4학기에는 표현기법과 디자인 전개, 모형제작이 계속해서 개설되며, 기술학이나 디자인에 관한 이론시간이 보완된다. 이와 같은 기초 교육과정이 끝나면 4학기 과정에서 습득한 성적으로 상급 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낙제 할 경우에는 재 수강해야만 하며, 이 증명서는 다른 학교의 상급 교육과정으로 편입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직업학교에서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기술에 관한 기초이론과 심도 있는 기술실기가 개설된다.

3.3 상급교육 과정

5학기에서 8학기 내지는 학교에 따라 9학기로 구성되며, 디자인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론과 실기가 적절하게 개설된다. 전공실기에 치중할 수 있는 시기로 다양한 방면의 실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상급 교육과정에서는 학기에 구애됨이 없이 사회학과 인간공학, 디자인에 관련된 이론과목들과 전공실기가 개설되는 유동성을 지닌다. 그 외에 선택과목으로 많은 과목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면 사진학이나 CAD, 문자 도안과 같은 표현기법이 개설된다. 그리고 디자인과 기술에 관련된 이론, 디자인의 역사나 미술사,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목들도 개설된다. 또한 직업학교에서는 공장에서의 실제 체험을 위주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도 다루어진다.

3.4 졸업논문

위와 같은 정규과정이 끝나면 논문학기로 들어 가는데, 이것은 학생들 개인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다. 선진국의 디자인이 많은 발전을 이룬 만큼 디자이너의 실업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습경력으로 방

학중에 한 두 달부터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된다. 이것을 계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들이 실습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졸업전의 실습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므로 확실한 근무처를 찾기 전까지 졸업논문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실습에 관계없이 곧바로 졸업학기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다.

논문은 학생들이 디자이너로서 첫 출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회사 면접시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논문 테마는 졸업후에 일하게 될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하며, 산학협동을 하거나 디자인에 관한 이론과 기술적인 영역의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논문이 마무리되면, 제출한 후에 적당한 시기에 발표회를 갖는데 그 일시와 장소는 일주일 전에 공고되어진다. 심사위원은 보통 세 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학교의 교수이거나 외부에서 의뢰 받은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논문테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졸업논문의 최종 성적은 논문과 구두시험으로 결정된다.

4. 독일대학의 가구디자인교육 특성 분석

기능주의의 대량생산 개념으로 출발하는 독일의 가구디자인 교육의 특성은 형태보다는 기능과 기술에 치중한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는 반드시 이전의 것과는 다른 기능이나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엔지니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가구에 있어서 튼튼하고 편리한 독일의 디자인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그들의 국민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것은 감각적인 이태리가구가 독일에

서 잘 팔리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즉,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혁신적인 기술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독일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하드웨어분야의 특허 기술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독일 디자이너들의 활동으로도 입증된다.

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교육과정들은 기술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직업학교에 개설된 수학이나 물리학 등의 과학 이론들은 디자이너들이 공부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이론적 바탕이 독일의 가구 산업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지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의 실습을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교육방침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적인 박람회를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독일의 여건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각 분야 전문가의 지도하에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대학 가구디자인 교육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 기술에 중점을 둔 철저한 기초이론과 적절한 실기의 조화로 교육되어진다.
- 둘째 : 형태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기능창출에 주력한 디자인교육이 이루어진다.
- 셋째 : 다양한 분야의 실습과 산학협동을 통해 사회와 괴리되지 않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5. 결 론

5.1. 가구디자인 재교육 프로그램 제안

우리 나라 가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부터 직업훈련원이나 전문대학 그리고 정규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그 학력 정도가 다양하다. 이러한 사

실은 디자인과 제작이 분리되어 있지 않던 과거에서 벗어나 디자이너가 자기 자리를 정립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 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디자이너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요구된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하는 디자이너들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즉, 신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앞서가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이론과 새로운 정보들을 접해야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가구디자인 교육과정들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나라 가구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우리는 가구분야의 기술적인 혁신을 꾀해야 하는데 이것은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국외로의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외형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세계로 뻗는 우리나라 가구산업을 일으켜야한다. 따라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재교육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가구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을 총 5학기(2년 6개월)과정으로 개설해 보았는데, 이것은 독일대학의 8학기나 9학기의 교육과정 중에서 상급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 교육대상이 직업전문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그리고 그 이상의 학력자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에 제한하기 때문에 기초교육과정의 중복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2년제 전문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졸업 후 심화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으며, 이 과정을 졸업한 후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것을 전제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학기

- 영어 I
- 가구재료학
- 조형과 색채
- 디자인방법과 이론

-CAD	-가구디자인 I
-환경보호	-작업안전교육
2학기	
-영어 II	-마케팅 I
-기술학	-제작기술 I
-CAD II	-인간공학
-가구디자인 II	
-CNC목재가공에 관한 기초	
3학기	
-영어 III	-가구디자인 III
-제작기술 II	-마케팅 II
-실내디자인 I	-CNC
-공장경영	
4학기	
-영어 IV	-품질안전실험
-실내디자인 III	-가구디자인 IV
5학기	
-작품제작에 관한 논문	
<p>기초교육과정인 1, 2학기에는 기술학이나 마케팅과 같은 가구디자인에 필요한 다방면의 기초이론을 재정립하고, 가구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새로운 제작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CNC를 이용한 가구제작기술 등을 연마한다. 여기에서 환경보호, 기술학 그리고 CNC목재가공에 관한 기초 같은 과목들은 독일의 교과과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였다. 상급교육과정인 3, 4학기에는 품질안전실험, 인간공학 그리고 경영등의 전문적인 이론을 다루고, 실기는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가구제작과 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디자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장경영이나 품질안전실험과 같은 과목들은 독일 직업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보다 실제적인 디자이너 교육은 물론 경영자로서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준비하는 5학기에는 산학협동을 통한 작품논문으로 학생 각자가 알맞는</p>	

테마를 찾아 전개하며, 논문 심사위원 중의 최소한 명은 기업체에서 초빙되도록 한다. 또한 1학기부터 4학기 전반에 걸쳐 계속 개설되는 영어는 디자이너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강사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측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독일의 가구디자인 관련학과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디자이너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 보완함으로써 우리 나라 가구산업의 미래를 보다 밝게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1. design report, 1996. 4월호. 102-104쪽,
2. design report, 1996. 5월호. 102-104쪽,
3. design report, 1996. 6월호. 146-150쪽, 독일
4. www.ba.mosbach.de
5. www.ba.dresden.de
6. www.fh-rosenheim.de
7. www.fh-pforzheim.de
8. www.fh-dortmund.de
9. www.fh-eberswalde.de
10. www.uni-weimar.de
11. www.fh-wiesbaden.de
12. 서현선. 1996. 가구 산업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논문